



‘젊은피’ 기동력으로 승부한다

WBC 대륙 물갈이 새출발

김동주도 출전 포기

김태균·이대호에 선전 기대

‘박진만과 이진영 빼고 다 바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계기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야구대표팀이 3년 전 초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완전히 다른 선수들로 제2회 WBC를 준비한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때...

(삼성·내야수), 이진영(LG·외야수) 등 7명 뿐이다. 김태균(한화)은 초대 WBC 때 태극마크를 달았으나 이승엽에게 밀려 후보로 벤치를 지켰다. 결국 이번 WBC는 세대교체를 이룬 대표팀의 통령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무대다.



‘빙상 특급’ 이상화 거침없는 질주

7일 오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39회 회장배 전국 남녀 빙상경기대회에서 여자대학부 500m에 출전한 한국체대 이상화가 질주하고 있다.

최경주, 레너드와 샷 대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무서운 신예 앤서니 김(24)과 카밀로 비에가스(26·콜롬비아)가 개막전에서 샷 대결을 펼친다.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8일(이하 한국시간) 밤 하와이 카탈루냐 골프장 플라타이션코스(파73·7천411야드)에서 열릴 1라운드에 앤서니와 비에가스를 같은 조에 편성했다고 7일 발표했다.

최민호 2008 유도회 MVP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6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민호(29·한국마사회)가 대한유도회 선정 2008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유도회는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체육회 회의실에서 결산이사회를 갖고 최민호를 최우수선수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배구 ‘상무 경계령’

신병·고참들 ‘불사조 정신’ 무장

삼성화재전 연패 시슬 끊고 첫승

2008~2009 프로배구판에 본격적인 ‘상무 경계령’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아마 초창기팀인 신협상무는 6일 삼성화재와 경기에서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후 첫 승리를 거두며 최대 이벤트를 일으켰다.



신협상무 선수들이 지난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배구 V-리그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 1세트에 이어 2세트마저 따낸 뒤 환호하고 있다.

올 시즌 프로로 전향한 KEP045에 이어 대한항공파워 3-1로 잡아내며 각 프로 팀을 두루려움의 대상이 됐던 신협상무가 8연승을 이어가던 삼성화재마저 침몰시키면서 남은 시즌 ‘고춧가루 부대’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점랭킹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시즌 득점 10점 내에 상무 선수가 한 명도 없던 것과는 뚜렷이 비교되는 대목이다. 리베로 이강주는 여오현(삼성화재) 등을 제치고 수비 부문 1위다.

“2009년 캐치프레이즈 공모합니다”

KIA 타이거즈 14일까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09시즌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찾는다. KIA는 7일부터 14일까지 팀의 진취적인 기상과 승리를 열원하는 내용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KIA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1월 말에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를 통해 공지된다.

박찬호, 필라델피아에서도 ‘등번호 61번’

박찬호(36)가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도 등번호 61번이 박힌 유니폼을 입는다. 필라델피아는 7일 박찬호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다. 박찬호는 지난해 필라델피아와 1년간 기본 연봉 250만달러를 포함, 최고 500만달러를 받는 조건에 계약했다고 이날 신체를 검사 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다. 월드시리즈 우승팀에 오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다저스에서 뛴 때는 플레이오프에서 필라델피아를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올해는 동료를 도와 두 번째 우승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인동업부동산 (02)223-1140, 5210 헬 011-602-2532

금보부동산건설 (02)261-8949 헬 011-602-2233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헬 010-2006-0115

금당부동산 (062)223-7400 헬 016-632-5659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신명매매 (02)223-1140, 5210 헬 011-602-2532

수완지구 상업용지 (062)973-9174, 016-757-8800

토지매매 (062)371-1900, 헬 010-2006-0115

공시가·감평가 70%이하 (062)223-7400 헬 016-632-5659